

나가사키 평화선언

핵무기는 인간을 파괴하는 잔혹한 무기입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미국의 군용기가 투하한 한 발의 원자폭탄이 상공에서 작렬한 순간, 맹렬한 폭풍(爆風)과 열선이 나가사키시를 덮쳤습니다. 거리에는 검게 탄 시체와 전신이 화상으로 문드러진 사람, 내장이 튀어나온 사람, 수많은 유리 파편이 몸에 박혀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나가사키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원폭에서 방출된 방사선은 사람들의 몸을 파괴하였고, 이로 인해 생긴 병이나 장애는 가가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끊임없이 인간을 파괴하는 잔혹한 무기입니다.

올해 5월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피폭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행동을 통해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로 오십시오. 원자구름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핵무기 없는 미래를 생각하는 출발선입니다.

올해는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핵 군축 협상을 진전시키는 법적 틀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토론을 벌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큰 진전입니다. 그러나 곧 결과가 정리되는 이 회의에는 핵무기 보유국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서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국가들과 핵무기 금지의 교섭 개시를 주장하는 국가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핵무기 근절을 향한 길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회의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여 논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유엔과 각국의 정부 및 국회,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핵무기 근절을 위한 법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올가을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틀에 관한 협의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류사회의 일원으로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핵무기 보유국에서는 더욱 고성능의 핵무기로 바꾸려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 근절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비핵 3원칙의 법제화와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 보장의 틀인 “동북아 비핵지대”의 창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잘 아는 유일한 핵무기 피해국으로서 비핵지대라는 인류의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핵무기의 역사는 불신의 역사입니다.

국가 간의 불신 속에서 더 위력이 세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세계는 아직도 1만5천 발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하며, 전쟁과 사고, 테러 등에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고 불신의 사이클을 신뢰의 사이클로 전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꾸준히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일본은 헌법의 평화 이념에 기초하여, 인도적 지원 등 세계에 공헌함으로써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인 우리 개개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가를 넘어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서로의 언어와 문화,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한 히로시마 시민의 모습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행동 하나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단한 초석이 됩니다.

피폭된 지 71년이 지나,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었습니다. 세계가 “피폭자가 없는 시대”를 맞이할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쟁, 그리고 전쟁이 낳은 피폭의 경험을 어떻게 전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일상, 예를 들자면 엄마의 상냥한 손길, 아빠의 따뜻한 눈빛, 친구들과의 대화, 좋아하는 사람의 미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체험과 피폭자의 경험에 꼭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가사키에서는 원폭 피해자를 대신하여 자녀와 손자 세대가 그 경험을 전하는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시로야마 초등학교 건물 등을 국가 사적으로 후세에 남기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젊은 세대의 여러분, 미래를 위해 과거와 마주하는 첫걸음을 내디뎌 보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나가사키는 방사능에 의한 고통을 경험한 도시로서 후쿠시마를 응원할 것입니다.

지금도 원폭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피폭자를 더욱 충실히 원호하고, 피폭 지역의 확대를 막고 피폭 체험자를 하루빨리 구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자폭탄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나가사키 시민은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핵무기 근절과 평화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9일
나가사키시장 다우에 토미히사(田上 富久)